

## 토끼



### 요약

앨리스는 언니 옆에서 지루하게 앉아 있다가,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에 실망한다. 그러던 중 하얀 토끼가 "맙소사! 너무 늦었어!"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따라가게 된다.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앨리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 뒤를 따르며 굴 속으로 뛰어든다. 떨어지는 동안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감소 속에서 마치 지하 세계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녀는 굴 속에 있는 책장과 지도가 보여 흥미롭게 바라본다.

## 본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제2장: 악어굴 아래로 앨리스는 언니 곁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몹시 지루했다. 한두 번 언니 책을 슬쩍 들여다보았지만,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은 무슨 재미로 읽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다면, 그런 책은 무슨 소용이람!'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날씨가 매우 더웠기에 그녀는 잠깐 졸릴 지경이었다. 데이지 꽃을 따서 화환을 만들까 생각하던 찰나, 분홍 눈을 가진 하얀 토끼가 그녀 곁을 지나쳤다. 이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었기에, 앨리스는 토끼가 "맙소사! 너무 늦었어!"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들여다보고 달려가는 것을 본 순간, 앨리스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그 광경이 너무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 들판을 건너갔다. 마침내 토끼가 울타리 밑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자, 앨리스도 주저하지 않고 그 뒤를 따라 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굴은 길고 깊었다. 앨리스는 굴 속으로 한 없이 떨어졌다. 처음엔 놀랐지만,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마치 지하 세계로 여행을 가는 기분이었다. 벽에는 책장과 지도가 보였고,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그것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